

交通事故豫防

李 根 熙

(漢陽大教授·經博)

1. 交通安全의 意義와 目的

交通安全이란 넓은 뜻으로는 陸上·海上·航空 등의 交通에 있어서의 安全을 말하는 것이나 陸上交通은 鐵道交通과 道路交通으로 나누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보통 道路交通에 대해서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道路交通의 安全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이 도로의 교통에 의해서 침해되는 일이 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자동차 등이 안전하게 통행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연도의 주민이나 건물 등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도로에 있어서 交通安全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교통으로부터 보호하자는 데 있는 것인데, 직접적인 목적으로서 는 교통의 위험을 예방하여 交通事故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은 물론이고, 교통의 원활을 도모 하자는 것이며, 이밖에도 道路交通에서 생길 수 있는 장애를 하면서도 쾌적하고 經濟的인 交通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또 자동차가 배출하는 가스·소음·진동 등도 일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道路交通에 기인하는 장애로 되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방지를 생각하는 것도 交通安全의 目的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交通安全의 目的에는 교통 기관과 그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화물이 안전하게 운행 되어야 한다는 것과, 교통 기관이 연도의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이 안전을 위협 받지 않도록 하는 데도 있다.

2. 交通事故의 防止

交通事故란 일반적으로 말해서 차량 등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사상, 또는 물의 파손 등이 있었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된다면가 부상을 입게 되거나 재물에 파손이 생기게 되면 交通安全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생각하고 있는 交通安全의 목적은 달성 되지 않는 것이다.

交通事故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실시되고 있는 도로의 환경을 한층더 안전하게 해야 하는 동시에, 그곳을 운행하는 자동차 등도 스스로 보다 안전한 것으로 정비하고, 또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자전거 이용자·보행자 등 모든 사람들이 교통의 루울 즉, 규칙이나 매너를 지키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交通事故를 당해본 일도 없고, 또 交通事故를 일으킨 일은 없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감을 지닌 채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도로를 보행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은 높은 불안감

의 배경에는 통행자들의 交通秩序 위반이나 좋지 못한 메너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① 交通安全施設의 개선 정비, ② 交通安全教育의 철저화, ③ 交通團束의 合理化, ④ 運轉免許制度의 개선, ⑤ 自動車工學의 科學化 등과 같은 交通安全對策을 통해서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힘쓰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위험이고, 무엇이 안전이라고 생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로서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주의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도 생각할 것이다.

이와 같이 安全態度를 절대적인 기준에서 파악할 것인가, 상대적인 기준으로 파악할 것인가 또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는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가능성에서부터 완전히 사고가 일어나서는 아니될 점을 문제로 할 것인가, 필요 최소한을 문제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두드러지게 위험한 태도가 아니면 安全態度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安全態度라고 해서 절대로 交通事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보아서 그와 같은 사고 발생의 비율이 적은 경우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의 安全態度는 그 사람의 사는 방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환경의 분위기 등 주변에 의존하는 측면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생각해 본다면, 安全態度는 선천적일 수도 있지만 후천적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음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들의 경우는 오늘날의 科學時代에 살고 있고,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과학의 소산물을 사용은 하면서도 그것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安全態度의 형성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해보지 않은 것과 같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사람에게 의해서 저질러지는 사고를 安全事故라 한다. 이러한 安全事故는 ① 사고 원인이 복합되고 있으며, ② 그러한 사고 원인이 연쇄반응되어서 일어난다는 것인데, 安全事故의 복합

원인을 설명하는 理論的인 原理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① 사회적인 결합 또는 제도적인 결합이 있다.

② 이러한 결합이 개인 성격의 결합을 만들어 낸다.

③ 따라서 불안정한 행동이나 불안정한 환경을 알지 못하는 결합을 만들어 낸다.

④ 이것이 연쇄되어서 사고를 일으키게 되고

⑤ 결과로서 상해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事故原因의 連鎖反應에서 다시금 사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위의 다섯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이라고 제거될 수 있다면 事故防止가 가능해질 것인데, 이제까지 우리에게는 事故防止를 위한 安全對策的인 努力이 전연 없던 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交通事故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통계는 어떻게 집계되었든지간에, 이들 모든 사고들은 동일 또는 유사 원인에 의한 사고라는 것인데, 이처럼 동일 또는 유사 원인 사고가 되풀이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첫째 交通事故를 제대로 조사·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둘째 交通安全對策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交通安全對策에는 앞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대책들 중에서도 보다 힘써야 할 것이 交通安全教育이라고 생각된다. 交通安全教育은 사회적 또는 제도적인 결합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지름길이지만 이러한 대책적인 방법이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交通事故를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되고말 것이다.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의 交通事故 연령이 젊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보아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道路交通이 등장하고 또 일반화하던 초기에는 많은 交通事故를 유발했던 선진국들도 교통 중사자들이 젊어지고 세대 교체를 하면서 交通事故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오히려 역현상이 지배적이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交通事故는 증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될 수 있지만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젊은 청소년들에게 합리적인 交通安全教育이 없다. 기술이나 기능은 이해했는지는 모르나 그것이 왜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

둘째, 기성인들이 도로에서 제멋대로의 행동을 한다. 그것이 不安全行動으로 되고 그것이 不安全環境을 만들더라도 청소년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뿐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인가보다 하는 무의식적인 답습을 되풀이한다.

셋째, 도로에서 安全態度를 지키고 실행하는 것을 오히려 촌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등으로 간추려 볼 것이나, 이러한 모든 결함은 안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든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질러지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3. 交通事故의 豫防과 3E의 原則

道路交通이 안전, 원활, 무공해적이면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사회적인 요청인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3E의 原則이라는 것이 있다. 이 3E의 原則은 交通安全對策의 基本을 이루는 것으로서 ① 交通安全教育(Traffic Safety Education), ② 交通工學(Traffic Engineering), ③ 交通法規의 執行(Traffic Law Enforcement) 등을 간추려서 생각하는 것인데 이들에 대해서 요약·설명해 본다.

(1) 交通安全教育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보행자, 자동차 이용자, 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필요한 交通安全에 관한 사상이나 지식의 보급과 이것을 몸에 익혀서 습관화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학·민이 일체가 되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인데, 특히 민간이 이룩해야 할 임무는 아주 큰 것으로서 交通安全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된다.

요즘 흔히 社會教育이란 말이 자주 쓰이고 있

는데, 기성세대가 아무런 생각없이 도로에서 저지르는 일들은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답습되고 마는 것인데, 이것이 만일 불안정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우쳐야 할 것이다.

(2) 交通工學

이에는 道路工學, 自動車工學, 人間工學, 교통 규제에 관한 工學 등이 포함된다. 안전한 道路交通環境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과학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는 경찰·도로관리기관·운수행정기관 등이 총망라되어야 할 것이다. 交通은 개별 기능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종합관리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綜合科學으로서의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종합대책은 행정이란 측면에서도 요구되고 또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것인데, 특히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기능을 갖춘 정부 차원의 統合調整機構가 바람직하게 된다.

(3) 交通法規의 執行

이에는 경찰관이나 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交通指導團束을 비롯해서 검찰청 또는 재판부의 사무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내용이 포함된다. 아무리 道路交通環境을 정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安全教育을 실시하더라도 交通法規나 交通規則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交通安全은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답과 계란이 어느 쪽이 먼저인가 하는 것과 같이 交通安全教育이 없기 때문에 교통법규나 교통질서가 무시되는 것인지 모르나 성급한 결론을 내린다면 交通安全教育이 제대로 토착되고 확산될 수만 있다면 오늘날과 같은 交通事故는 분명히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사람의 生命일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것이 어째서 道路交通에서는 무시 내지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국민 소득이 늘어난다고는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교통

상황 속에서는 불안한 것이다. 이처럼 불안한 교통에서 무슨 편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交通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줌으로써 한편으로는 지역간의 문화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물가를 평준화해서 福祉生活을 증진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들의 불안전으로 말미암아 송두리채 그 근본이 뒤흔들린다면 이는 크나큰 社會問題가 아닐 수 없다. 또 이러한 生活習慣이 젊은층에게 답습되어 간다면 이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交通事故의 요인으로 잠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또 이러한 폐단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한 것이므로 새로운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步行者 特性과 交通事故 豫防

사람은 많거나 적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지만, 이제까지 보행자이던 사람이 자동차를 타더라도 보행자를 귀찮게 생각하게 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놓여 있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免許制度가 없는 보행자일수록 심한 것이 보통이다. ① 길길이 급하기 때문에, ② 통행 차량이 적다고 생각해서, ③ 횡단보도는 저멀리에 있기 때문에, ④ 육교나 지하보도는 귀찮은 것이기 때문에, ⑤ 내가 횡단할 때 자동차는 정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은 어린이·중년부인·노인들에게서 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

어린이들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생각하기만 하면 주위의 어떤 사항에도 관계없이 행동하게 된다. 어린이들은 지각 기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노인들인 경우는 판단력이나 운동능력 등이 쇠퇴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며, 청장년들에게서 일어나는 많은 交通事故들은 술에

취했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지나친 자신감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行動特性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 行動特性

어린이들이 직면하고 쉬운 交通事故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 ① 도로에서 몇 어린이가 놀고 있다가 자동차의 접근을 모르고 있다가는 갑자기 뛰다가 충돌한다.
- ② 자전거를 가속으로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충돌하기도 한다.
- ③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경우 가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판단하지 못한다.
- ④ 자동차의 바로 앞 또는 뒷쪽을 주의력 없이 횡단하고자 한다.
- ⑤ 혼자 다니는 어린이에게는 주의력이 없다.

(2) 老人의 行動特性

老人의 行動特性 중에서 특히 交通問題와 관계가 깊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 ① 신체·기관·조직·기능 등이 모두 쇠퇴해서 위험감이 결핍되어 있다.
- ②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중심적이면서 아주 신경질적이다.
- ③ 생명력이 아주 약화되어서 쉽게 넘어지고, 넘어지면 크게 부상한다

등이 行動特性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交通安全對策 또 交通事故 豫防對策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과 같이 安全對策이나 豫防對策은 어린이들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나라 交通事故 운전자들의 연령이 20세 이하에서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현실은 어쨌든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

<參考文獻>

李根熙 著, 交通安全, 1985, 創知社.